

# ‘개발원조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열린다

### 전북대 - KOICA, 청년 해외 진출 설명회·각종 공연 등 준비 다채

전북대학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이육현)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개발원조의 날(매년 11월 25일)’을 맞아 22일 오전 11시 진수당 기인홀에서 ‘KOICA 버스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25일은 우리나라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로, 한국이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뜻깊은 날이다.

정부는 이 날을 기리기 위해 ‘개발원조의 날’로 정했고 KOICA는 2015년부터 매년 이날을 기점으로 일주일간을 ‘개발협력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KOICA를 통한 청년들의 해외 진출 방안 설명회와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KOICA를 통해 청년들이 어떻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2부에서는 염소희 키자미 테이블대표가 봉사단 활동 경험담 및 노하우, NGO 운영담을 주제로 강연한다.

행사 말미에는 슈퍼스타K 출신의 가수 김지수의 축하공연과 함께 경품 추첨행사도 마련된다.

토크콘서트와 함께 이날 전북대 진수당 로비에서는 KOICA 신입 채용, 해외봉사단, 국제협력 청년 전문가, 국제기구 다자협력전문가, UN 봉사단 등 프로그램별 1대1 상담부서도 운영되고, 청년들의 KOICA 이해 증진을 위해 KOICA와 관련된 사진 및 UCC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도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개발협력분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취업 및 진로 상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청년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부산, 전주, 인천 세 곳에서만 개최되는데 20일 부산에 이어 전주에서 두 번째로 22일 열린다.

또한 ‘개발협력 주간’에 전북대에서는 콘서트 행사 외에도 대학생 ODA 토론회(22일), 해외봉사활동 사례경진대회(24일)를 개최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교육부의 안전체험관 확충사업에 전라북도교육청이 공모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21일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 예산 24억원을 포함, 총39억원을 투입해 부안에 위치한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내 해양안전체험관 설치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해상사고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 선박 탈출교육 등 9가지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한 실내 교육장을 조성해 도내 초중고생들이 계절과 기상상황에 상관없이 상시 해양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해은 기자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상체험교육 이상 무

### 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공모사업 선정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1,078㎡ 2층 규모의 사위실 등을 갖춘 해양안전체험관을 신축해 선박 슬라이드 탈출, 선박 뛰어내리기 탈출, 선박 사다리 밧줄 탈출, 구명 뗏목 탈출, 구명환 던지기, 침수자 구조 교육 등 9가지 해상안전체험을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상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련지도사, 전문경력관, 간호사 등 학생안전교육인력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에 재난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안전체험관 설치에 이어 해양안전체험관도 별도 갖추게 됐다. /정해은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에 재난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안전체험관 설치에 이어 해양안전체험관도 별도 갖추게 됐다. /정해은 기자



▲ 확산 방지 시 차단에 비상이 걸린 21일 전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계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올바른 기부 문화 정착 초석 다지기

### 바자회·기부콘서트 전북대 총학, 오늘 열여

전북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콘서트를 22일 연다.

이번 행사는 오후 5시부터 학술문화관 앞 공터에서 열리는 바자회를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는 학술문화관에서 학생과 대중기부가 펼쳐지는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이날 기부 바자회에서는 기부 희망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판매한다. 또한 기부콘서트에서는 중앙동아리 공연과 총학생회가 준비한 무대, 그리고 무용학과 공연이 이어지고 오후 9시 10분부터는 초대가수 ‘투빅’이 대미를 장식한다.

이 기부콘서트에 총학생회는 3,000원의 입장료를 받을 예정이다. 바자회와 콘서트 입장료 수익, 그리고 모아지는 기부금은 전주시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백승우 총학생회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학우들의 끼를 마음껏 뽐내면서 재능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부에 참여하는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번 기부콘서트를 마련했다”며 “전북대 학생들이 마련한 이번 콘서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에 재난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안전체험관 설치에 이어 해양안전체험관도 별도 갖추게 됐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민축구단, 내달 8~9일 공개테스트 실시

전북 유일 남자 실업축구팀인 전주 시민축구단이 내년 시즌을 함께할 새 식구를 찾는다. 21일 전주 시민축구단에 따르면 다음달 8~9일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개 테스트는 만 18세 이상 고교 이상 축구선수 경력자(K리그와 내셔널리그 출신 제외)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실시되는 것이다. 공개 테스트 지원자는 전주 시민축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다음달 5일 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

# “김장재료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 전주시 22일~24일 종합경기장서 직거래 장터 운영

전주시가 김장철을 맞아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김장재료 직거래장터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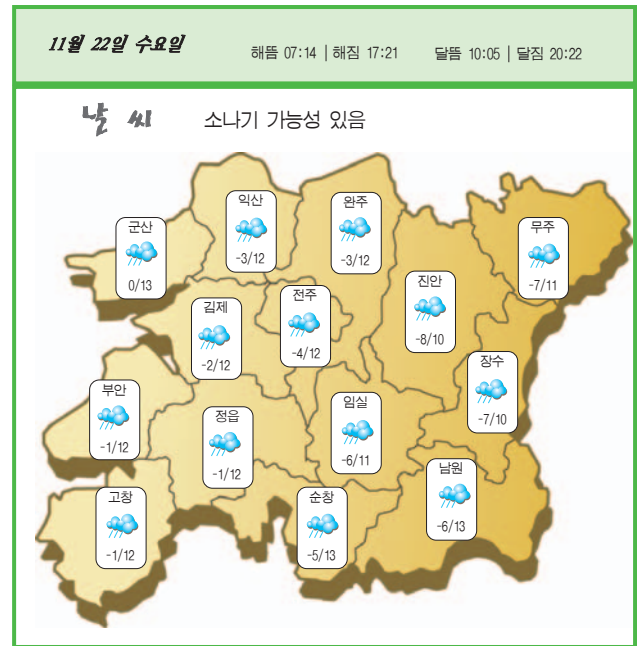
시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 내 전주푸드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지역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김장채소를 판매하는 ‘김장철 김장재료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직거래 장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배추와 무, 갓, 당근, 고추 등 각종 김장채소와 젓갈 등 김장용 부재료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특히, 배추는 2kg기준 1포기에 1,300원, 무는 2kg에 1,000원 선에 판매되며, 전주푸드를 이용해 만든 수육과 김치 등을 맛볼 수 있는 시식코너도 운영된다.

시는 전주농협과 전주푸드가 상생 협력을 다지는 의미로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푸드와 전주농업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푸드센터 강성욱 센터장은 “직거래장터에서는 전주지역 농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신뢰를 쌓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행복은 교육당에서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